

“건물은 올라가겠지…” 유가족 상처 치유는 ‘요원’

‘학동참사’ 4주기

(상)흐르고 멈춘 시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 17명이 안전보다 이익을 쫓던 이들에 의해 죽거나 다친 학동 붕괴 참사가 9일 4주기를 맞는다. 그날로부터 1천일이 훌쩍 지나는데, 동안 현장의 상흔은 모두 사라졌으나, 유가족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며 학동 붕괴 참사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담은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작년 10월 철거 끝…‘17명 사상’ 흔적 無

책임자 처벌 마지막 대법원 판단 남아

추모공간 조성 ‘공사비 협의’ 발목 잡혀

영구 보존 윤림54번 전신 장소도 미정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원점에 있는 것 같아요.”

학동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8일 황옥철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졌다.

건물 잔해가 이곳을 지나던 윤림54번 버스를 덮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비리 복마전으로 기록된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은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욕심이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학동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사고 현장은 지난해 10월 철거가 완료돼 큰 시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 욕심에 무고한 시민이 파묻힌 그날로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참사 현장의 상흔은 모두 지워졌다.

이날 오전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은 큰 가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 모습은 훤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울타리 사이 틈으로 보이는

부지는 깔끔했다.

철거 전 뿔뿔히 들어섰던 건물들은 지난해 10월 모조리 치워져 콘크리트 조각 같은 작은 잔해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이 수습되는 동안 수사 기관은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다원이앤씨 관계자, 백솔건설

관계자 등 7명과 법인 3곳(현산, 백솔건설, 한솔기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고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2월 내려졌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7명 중 실형을 살게 되는 건 2

명(백솔건설 대표·징역 2년6개월, 한솔 현장소장·징역 2년) 뿐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개발 공사의 시공사인 현산은 사회적 책임 이행과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재개발 조항과 시공사가 공사비 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좀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공간의 조성은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을 때 같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요청한 사고 버스 윤림54번 영구 보존의 경우 어디에 둘 것인지 광주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역 한 창고에 그저 보관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 하나 이행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황옥철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제는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현산, 광주시, 동구청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정말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커녕 만남 자체를 피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황 대표는 “공사도 공사지만 그전에 먼저 조합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말을 듣고 싶다”며 “꼭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처벌과 함께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기자

광주 시내버스 오늘 재파업…교통대란 우려

평시비 운행률 30% 전망

12일 광주시청 앞서 집회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4일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에서 3차 조정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6-8일 현충일 연휴 기간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 광주시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파업 재개를 강행하기로 했다.

파업 첫날이었던 지난 5일 광주시가 비노조 인력을 투입,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를 유지해 큰 혼란은 없었으나 이번 파업에서는 운행률이 3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 파업 당시 전체 1천362명의 노조원들 중 1천여명이 참여했던 것과 달리 전체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 시내버스 1천41대 중 660여대가 멈춰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파업때 비노조 인력들 중 일부가 허가 없이 대형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사측에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번 파업엔 이

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충일 연휴 기간 파업을 유보하며 광주시와 사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돌아온 것은 무응답뿐이었다”며 “오는 11일까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투입, 운행률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운전원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 임차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장은정 기자

처자식 살해 40대, 아내와 계획범죄 ‘무게’

가족 모두 생명보험 가입 無

가족여행을 가장해 떠난 여행지에서 처자식을 살해한 40대가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채로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에 빠진 지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그와 아내 간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추락 직전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씨의 아내도 최소한 범행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나와 무안 펜션에서 하루 묵었고 31일에는 진도

등에서 여행을 다녔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지씨 부부는 아이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다.

두 아들이 잠에 들자 지씨는 바다로 돌진했고 그로부터 40여분 뒤인 오전 1시53분께 차에서 홀로 빠져나왔다.

이후 지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일 광주로 도피했는데, 그사이 119 신고 등 가족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거액의 채무에 시달린 지씨가 가족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내와 자녀 모두 관련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 파악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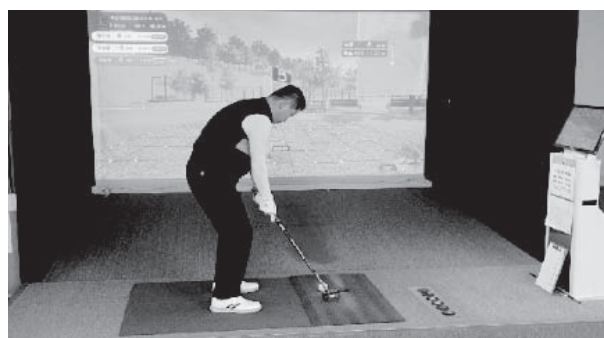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